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후손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 밖의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목석을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도 끝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역대하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역대하 맨 마지막 절의 말씀과 동일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마지막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1-2절 말씀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10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레스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의 맨 마지막 절과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사44:28).

그리고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 1장1절의 고레스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와의 시간 간격은 약 150-200년의 시간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고레스가 왕이 되기 약 150-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 그 백성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분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모든 인간들이 그 분의 은혜 안에서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심판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따라 그 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